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핑크빛 사랑 아닌 절절한 사랑 담아”

김창완밴드 새음반 'E메이저를 치면' 발표

마포구 합동동 지하 연습실에서 태평소 소리와 함께 '아리랑' 선율이 새어 나왔다. 김창완밴드는 오는 31일 열리는 페스티벌 '레인보우 아일랜드' 무대를 위해 연습이 한창이었다. 최근 발표된 새 음반 타이틀곡 'E메이저를 치면'으로 연주를 이어갔다. "라디오 진행 도중 잠시 기타를 잡았는데 아련한 어떤 게 오더군요. 'E메이저를 치면'이라고 제목을 짓고 E코드(미-솔-#시)를 쳤는데 뭔가 딱 걸린 것처럼 무척 좋은 느낌이 왔어요. 'E메이저를 치면'이 '기타 코드'로 지남날의 아련한 사랑을 풀어놓았다면 또 다른 곡 '괴로워'도 다른 빛깔의 연심(戀心)을 담았다. 김창완은 "더 해피스트' 음반은 본인의 자식에서 나온 것이니 사랑을 담을 수 없었고, '분홍굴작기'는 산울림의 음악적 계승을 위해 만들어 보충 가요가 많이 선택하는 주제인 사랑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야 한다"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를 건져줄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맑은 대낮인데 그날도 라디오를 마치고서 집이 빠져있었죠. 그때 신문은 보는 게 달달 떨어 종이조각 못 붙 때였어요. 망연하게 앉아있는데 '너를 기다려'란 첫 구절이 나왔죠. 곡을 완성하고도 눈물이 나서 노래를 못 불렀어요. 숨을 고르고 골라 겨우 녹음을 마쳤죠. 밴드에게 바로 음원을 보냈고 오후 5시에 만나 밀면을 한그릇씩 먹고서 새벽 1시가 돼서야 작업을 마쳤어요." 그는 음악이 주는 위로에 대해 "아픈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이 무척 많다"며 "신음보다 더 한 서리고 아픈 선율이 많다. 음악이 가진 힘을 너무 오만으로 소비해버린 것에 대한 반성을 날게 한다. 'E메이저를 치면'에서도 휘파람 불 때가 가장 슬프다. 그때는 엄청 슬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완은 "더 해피스트' 음반은 본인의 자식에서 나온 것이니 사랑을 담을 수 없었고, '분홍굴작기'는 산울림의 음악적 계승을 위해 만들어 보충 가요가 많이 선택하는 주제인 사랑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가요 중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60%라고 해요. (김창완) 산울림이 이끌던 산울림 노래도 조사해보니 58%가 사랑 노래라고 하더군요. 보편적인 주제 선택인 셈이죠. 하하." 그러나 그가 논하는 사랑은 단편적인 핑크빛이 아니다. 그는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한 사랑의 속성을 설치미술가 장지아의 작품을 예로 들어 답을 대신했다. "머질 전 장지아 씨의 독특한 작품을 봤어요. 태형(峯刑)을 하는 몽둥이에 아름다운 조각을 넣었고, 여성들의 하이힐을 쇠로 만들었더군요. 사랑도 아름답게 꾸며진 형구(刑具)인 셈이죠."

그는 "후 그랜트와 드류 베리 모어가 듀엣한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주제곡 '웨이 백 인투 러브'(Way Back Into Love)처럼 마치 대화를 나누듯 가사를 써서 선물해주고 싶었다"며 "가사를 주려 녹음실에 갔다가 같이 노래도 부르게 됐다"고 웃었다. 또 "아이유가 참 영리해 기대된다"며 "재즈,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것보다 정작 중요한 건 '왜 노래하죠'. 아이유가 '왜 노래하는가'를 우리 같은 세대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듀오 밴드) '앵거스 앤 줄리아 스톤'이란 팀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요즘 꼭 빠져 있어요. 레퍼런스(참고)가 될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김창완)

앞서 그는 한층 절절한 사랑 노래를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추모곡 '노란 리본'이다.

그는 "슬픔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가슴 아파 견디기 힘들었다"며 "노래가 나왔다고 하면 그 곡을 통해 내가 달아났다고 봐"

에릭·정유미 KBS 월화극 '연애의 발견' 주인공

배우 에릭(문정혁)과 정유미가 오는 8월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극 '연애의 발견'의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에릭의 소속사 E&J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연애의 발견'은 연애 중인 여자 앞에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코미디로, tvN '로맨스가 필요해'를 집필한 정현정 작가가 대본을 쓴다. 에릭과 정유미는 앞서 2007년 MBC '케세라세라'에서 호흡을 맞추며 남녀 간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릭은 인테리 전문업체 대표 강대하 역을 맡는다. 정유미는 옛 사랑과 지금의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구 디자이너 이름 연기한다.



에릭 정유미

KBS 이사회, 김환영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KBS 기자들의 제작자부가 26일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KBS 이사회가 이날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걸결 이사장을 비롯한 KBS 이사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여의도 KBS 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보완해 제출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1일 임시이사회에서 야당측 이사들이 제출한 김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 여부를 논의한 끝에 제안사유를 보완해 26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할 바 있다. 야당측 이사들은 새 제청안에 김 사장이 21일 사내담화에서 밝힌 입장을 추가하되 기자회견에 이은 PD협회 제작자부와 노조 파업 투표, 간부 사퇴 등 지난 일주일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장이 조직 관리와 경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 해임제청안은 이르면 사흘 뒤인 28일 정기이사회에

서 정식 의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KBS는 이날 'KBS 한국방송 경영진 일동' 명의로 일부 일간지들에 '공영방송 KBS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다. KBS 경영진은 "김환영 사장은 청와대 외압설과 보도 독립성 침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사내외에 분명히 밝혔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방송이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점묵시위를 하며 이사회를 압박했다. 새노조는 김 사장 해임제청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신관 계단에서 열린 새노조 전국조합원 총회에는 전국의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인 씨엔케이(CNK) 사태와 김 사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BS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es 'World News Review', '부부 (청개구리 길들이기)', '부릉부릉! 브루미즈',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제)', etc.

EBS플러스1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es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최태성의 (수학 I) (제)', '수능특강 (수학 I A형)', etc.

EBS플러스2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es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친절한 수학 익힘책 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행운의 숫자). Provides daily fortune numbers for each zodiac sign.